BLIZZARD ENTERTAINMENT

OVERWATCH x YOASOBI

작은 새의 추락



E. C. MYERS 단편 소설

글

E. C. MYERS

일러스트

MANDA SCHANK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SOPHIE ERB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MIRANDA MOYER, NESSKAIN, DION ROGERS

제작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JT TORREA

도움 주신 분

AIMEE DENNETT, TOSHIYUKI (TONY) IWASE, KAI KAMATA,
WATARU NINOMIYA, COREY PETERSCHMIDT, VALERIE STONE,
MIYU TORIMITSU, SHUYA YAMAMOTO, ASAMI YOSHINO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와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본 소설은 픽션입니다. 만화에 등장하는 이름,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로 사용되었으며, (생사를 막론하고) 실제 인물과 사업체, 사건,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는 작가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이 없습니다.

오버워치
지금까지의 이야기

수 세기 동안, 시마다 닌자 일족은 하나무라, 카네자카 및 하나오카를 포함하는 일본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며 지켜왔다. 비록 시마다 가문은 범죄자였지만, 폭력을 휘두르며 더욱 질 나쁜 일에 가담한 하시모토 조직의 전면적인 습격에서 지역 주민들을 지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마다 일족의 수장 소지로가 암살당하면서 가문은 혼란에 빠졌다. 소지로의 장남 한조가 곧 아버지의 공석을 물려받았지만, 일족의 장로들은 그를 손쉽게 사리사욕을 채울 수단으로만 취급했다. 장로들은 한조를 배제하고 일족의 힘을 사용해 협박, 암살, 권력 쟁탈 등 점점 더 위험한 일에 손을 댔고, 결국 국제 평화 유지 기관인 오버워치의 이목을 끌었다.

압박이 거세지자, 장로들은 한조에게 방황하는 동생 겐지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겐지와 한조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으며, 결국 닌자 결투에서 한조는 동생을 거의 죽일 뻔했다. 한조는 알지 못했지만 오버워치는 겐지를 구출해 그의 신체를 재건하고 아버지의 범죄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에 가담시켰다. 겐지가 시마다 일족을 끝내기 위해 오버워치와 하나무라에 돌아왔을 때, 한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운명의 결투 후, 친동생에게 저지른 일에 수치와 절망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떠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마다가 사라진 지금, 그들의 구역은 하시모토 조직이 차지했다. 하시모토의 장로들은 시마다의 도공 야마가미 토시로를 가두어, 과거 그가 시마다 소지로와 그 아들들에게 만들어 준 강력한 혼이 깃든 무기를 제작하도록 명령했다. 이어서 시마다의 검성이자 토시로의 아내인 야마가미 아사에게 민심을 꺾는 데 더욱 잔인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해, 그녀가 주민들을 복종시키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토시로와 아사 사이엔 키리코라는 딸이 있었다. 키리코는 시마다 성에서 자라며 겐지와 한조랑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성장한 그녀는 요괴라는 조직을 만들어 반란 조장에 앞장서는 등, 하시모토에 저항할 수단을 찾았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겐지는 자신이 결투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조를 찾아갔다. 이는 한조가 과거에 맞서는 동시에 미래의 자신이 어떤 역할을 원하는지 결단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도쿄로 돌아온 한조는 우연히 키리코를 만나, 널 섹터 침공으로부터 도시를 재건하고 탐욕스러운 하시모토의 손아귀에서 도시를 되찾으려는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도쿄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겐지는 오버워치로 귀환해 다시금 국제 평화 유지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지평선에 벤데타와 부활한 탈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떠오른다. 하시모토가 한창 위세를 떨치는 지금, 겐지는 그 위협을 가늠하고 그들이 탈론의 휘하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쿄로 향한다.

작은 새의 추락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지, 겐지의 아버지는 언젠가 그에게 말했다. *돈으로 일을 시키거나 싸우게 하는 건 아무 바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 줄 거야.*

텅 빈 시부야 거리로만 보건대, 도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보였다.

평소라면 일본의 수도는 지금처럼 늦은 시간에도 휘황찬란하게 붐비겠지만, 어둠 속 하라주쿠는 황량하기만 했다. 몇 개월 전의 널 섹터 공격으로부터 천천히 재건 중인 도쿄를 보며, 하시모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가 오기는 할지 겐지는 의문이 들었다. 혼란을 틈타 하시모토 조직이 일부 구를 통째로 손에 넣은 이후, 그곳의 주민들은 공포 속에 생활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직접 본 겐지는 오버워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도쿄로 출동했다. 자신의 것과 똑같이 생긴 무기를 휘두르는 야쿠자. 시마다의 도공 야마가미 토시로만이 제작할 수 있는 무기들. 널 섹터가 도시를 파괴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토시로의 무기를 가진 하시모토라면 모든 복구 작업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의문은 여전히 존재했다. 탈론이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시모토가 독자적으로 거둔 성과일까?

겐지는 낮은 지붕 모서리에 서서, 그림자가 드리운 거리에서 조직의 흔적을

찾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당장은 하시모토가 뭔가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만약 그들의 본거지를 찾을 수 있다면…

저기 있다! 드디어. 6명 남짓의 하시모토 조직원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구석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배수구 위 가로등과 아직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홀로그램 간판의 조명 속에서 그들의 오니 가면이 탁한 빛을 냈다.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모르고.

겐지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잠시 동안 지켜봤다. *놈들에게 여길 떠날 이유를 주는 게 좋겠군,* 그는 판단했다. 하나 정도 도망치게 내버려두면 본거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겐지가 건물의 모서리에서 자세를 잡자, 기술의 힘으로 복원해 강화된 팔다리의 제어 모터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위잉 소리가 났다. 그는 한 발 나아가 거리로 떨어졌다. 낙하 중 그는 하시모토 조직원 6명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놈들을 처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순서와 수단을 계산했다.

후방에 앉은 자세로 조용히 착지한 겐지는 검은색 가면의 조직원이 우연히 몸을 돌려 그를 보기 전까지는 들키지 않았다.

남자는 깜짝 놀랐다. "위험해!" 허둥지둥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며 그가 외쳤다.

겐지는 각 손가락 사이에 수리검을 끼우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가면을 쓴 자와 가로등까지 수리검으로 맞추는 바람에 주위는 어둠에 휩싸였다. 다른 하시모토 조직원이 성급히 총을 두어 발 쐈지만, 겐지는 쉽게 피했다. 총의 격발음과 총알이 튕기는 소리가 밤의 어둠을 타고 울려 퍼졌다. 빨간색 오니 가면을 쓴 남자 두 명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인도를 밟으며 겐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이 총을 난사하며 겐지가 있던 곳에 도착했을 때, 겐지는 이미 상대의 머리 위를 뛰어넘어 사라진 후였다.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남자 중 한 명이 중얼댔다.

"어디 간 거지?"

위에 있는 석조 건물의 외벽에 한 팔로 매달린 겐지는 빈손을 잽싸게 움직였고, 두 개의 수리검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목표에 명중했다. *콱. 콱.*

쓰러진 시체 옆으로 착지한 겐지는 그에게 총을 쏜 은색 가면의 여자와 맞섰다. 그는 와키자시로 간단히 사격을 튕겨낸 후 전진했다. 청동 및 흰색 가면을 쓴 두 명의 추가 공격자가 소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겐지를 습격했다.

사격을 옆으로 피한 겐지는 적의 무기를 깔끔하게 반으로 가른 후 청동 가면의 남자를 날아차기로 공격했다. 이내 반동으로 튀어 오른 그는 검으로 치명적인 나선을

그리며 회전했다. 둘이 땅으로 쓰러지자, 남은 것은 여자뿐이었다.

겐지는 그녀를 추적해 하시모토의 장로에게 갈 계획을 세우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다.

파지지직!

위에서 번개 같은 에너지의 충격이 내려왔다. 겐지가 튕겨낸 공격은 여자에게 적중했다. 그녀는 뒤로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슬린 옷에서 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뭐지? 누가?

공격원을 찾은 겐지는 새로운 적을 발견했다. 화려한 황금 오니 가면을 쓴 거구의 상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장 위에 기다란 가죽 외투를 걸친 부분이나, 소총 대신 일본도를 휘두르는 등 평범한 조직원과는 한층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내가 찾던 자로군, 겐지는 생각했다. 옷차림으로 보건대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적어도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듯했다.

소전은 겐지가 적의 전투원과 교전하는 것은 물론, 도쿄에 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하시모토의 부관이 직접 싸움을 걸어온 만큼, 겐지는 정보 이상의 것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시모토 부관은 오버워치와 지역 당국에게 가치 있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 짧은 고찰을 틈 삼아, 하시모토 부관은 카타나를 휘둘러 다수의 에너지 광선을 발사했다. 겐지는 주위 인도에 큰 구멍을 내는 강력한 공격을 피했다.

적이 가진 검은 야마가미 토시로가 완성하고 강화시킨 자신의 류이치몬지와 비슷한 에너지를 띄며 불규칙적으로 번쩍거렸다.

소문은 사실이었군, 그는 생각했다.

시마다 일족의 멸망 후 겐지는 토시로의 행방을 놓쳤지만, 그와 그 기술이 하시모토에게 있다면 놈들이 도쿄를 이렇게 빨리 손에 넣은 것도 설명이 되었다. 토시로의 검은 매우 강력해 다루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다. 부관의 무기가 발산하는 불안정한 스파크와 진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아직 무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먼지와 작은 시멘트 조각이 겐지의 방어구에 떨어졌다. 그는 자세를 낮추며 앞으로 구른 후 일어나 부관을 향해 수리검을 던졌다. 하지만 상대는 나타난 것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다.

그렇게 쉽게 달아날 순 없을 거다. 겐지는 소리 없이 근처 건물을 타고 고풍스러운 박공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는 지평선에서 움직임을 살피느라, 멀리 떨어진 부관이 아래쪽 난간으로 내려가며 코트가 흔들리는 모습을 놓칠 뻔했다.

겐지는 헛디디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도주하는 남자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그를 쫓아 지붕 위를 질주했다. 격자보다는 불규칙적인 구조가 하라주쿠의 특징이었다. 건물 사이 비스듬한 거리나 큰 길에서 갈라지는 수없는 좁은 골목, 그리고 막다른 길로 가득해 사실상 미로나 다름없었다.

겐지는 이 미궁의 거리에서 일탈을 찾으며 유년기를 보냈다. 아버지가 가진 기대의 무게, 돈을 위해 가족이 저지른 입에 담기 힘든 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면서 남긴 커다란 공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겐지는 결국 가족이 만든 철창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추악한 일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도쿄는 어릴 때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지만, 겐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상대를 추적했다. 거리를 좁히다가도 너무 가까워질 때마다 날아오는 번쩍이는 에너지의 파동을 피하고, 부관의 모습을 놓쳤다가 다시 발견하기도 했다. 마치 쥐를 쫓는 고양이와 같았다.

그 와중 부관에게 운이 따랐다. 그의 사격이 겐지가 아니라 그가 뛰어오르려던 지붕을 맞춘 것이다. 건물의 모서리가 무너지며 발을 둘 곳을 잃은 겐지는 수 층 높이에서 인도로 굴러떨어졌다.

겐지의 방어구가 추락을 받아내긴 했지만, 여전히 뼛속까지 충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충격에 이를 꽉 물면서 일어섰다. 이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도 그는 온전히 살아남았다. 주위를 둘러본 겐지는 다 허물어진 건물의 어둑한 입구에서 흐릿한 부관의 모습을 금세 발견했다. 겐지가 그를 향해 다가가자, 부관은 안으로 들어갔다.

부서진 네온사인이 깜빡거리는 입구 아래에서 겐지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드디어 그 남자가 실수를 저질렀다.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왔군.

겐지는 서둘러 버려진 오락실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도심에서 업무를 볼 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최근에 경영 상태가 나빠졌는지, 아니면 오래전 이미 문을 닫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니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겐지는 어둠 속에서 다양한 상태로 고장 난 게임기 사이를 천천히 조용하게 이동했다. 그는 자세를 낮춘 채 소리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폈다.

갑자기 빛이 번쩍이며 주위의 화면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폭풍이 다가온다!"

"파이트!"

겐지는 결국 가족이 만든 철창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추악한 일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 도쿄는 어릴 때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지만, 겐지는 그렇지 않았다.

"레디? 3, 2, 1, 시작!"

겐지의 손가락이 오락실 게임기의 버튼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며 밝은 화면의 픽셀화된 작은 아바타에게 일련의 동작을 입력했다. 강펀치, 강펀치, 약펀치, 약펀치, 약발, 강발. *파이터즈 오브 더 스톰*에서 겐지의 주 캐릭터인 스톤은 체력이 절반 남았고, 상대인 스랄은 아주 약간 남은 체력으로 버티고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인 지금, 겐지가 이긴다면 최고 득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화면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다. 겐지는 뒤돌아 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빛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게임 오버네, 그는 생각했다.

한조의 도착과 그것이 의미하는 일이 겐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것은 찰나였지만, 스랄이 스톤을 마무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스톤의 멍든 피투성이 얼굴과 운이 좀 나빴을 뿐이야, 어떻게든 해 낼 수 있어라고 쓰인 화면 위로 계속할까요?가 깜빡였다.

"뭔가 까먹은 거 없어?" 한조가 물었다.

"없어. 최고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겐지는 화면에 이니셜을 입력해, 그가 세운 수많은 기록에 한 줄을 추가했다.

"난 이 쪽을 말하는 거였는데." 한조는 오락실 게임기 위에 무언가를 내려놨다. 작은 여자아이가 깔깔 웃으며 기계 옆을 운동화로 찼다.

키리코! 게임에 푹 빠진 나머지 스승님의 딸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를 제대로 된 애 보기 담당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었지만, 카네자카에 갈 때면 종종 그녀가 따라오곤 했다.

"안녕, 겐지 오빠!" 그녀가 재잘거렸다.

"밖에 있던 걸 내가 봤다." 한조가 으르렁거렸다. *"혼자서."*

겐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근처에 있으라고 말했는데..."

"아니, 이건 얘 잘못이 아니야." 한조가 말을 잘랐다.

키리코의 쾌활한 표정이 흔들렸다.

겐지는 마침내 몸을 돌려 형을 마주 봤다. 한조는 이미 닌자 일족의 엄한 장로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 바보 같은 염소 수염도 그래서 기른 게 틀림없었다.

겐지는 주위에서 아무리 말한들, 그렇게 서둘러 철이 들 마음은 없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아무 일 없었잖아. 그렇지, 키리코?" 겐지는 그녀에게 윙크를 날렸다.

"*이번엔* 그랬지. 내가 왔으니까." 한조는 답답함에 두 손을 올렸다.

"어휴, 꼬마 닌자를 건드릴 녀석은 아무도 없다고." 겐지는 키리코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손으로 무릎을 꽉 쥐며 발목을 꼬았다.

한조는 주먹으로 오락실 게임기를 내리쳤다. "이건 장난이 아냐! 이런 유치한 외출에 데리고 다닐 거면, 최소한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잊지 말라고. 혹시 키리코가 납치되거나 다치기라도 한다면 스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알고나 있어...?"

겐지는 한조가 실제로 그녀를 *걱정*하는 것인지 잠시 생각했지만, 역시 그럴 리 없었다. 그가 걱정하는 건 오로지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뿐이었다. 장로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과 지위에 어떤 해가 될지.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키리코가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다.

"봤지?" 한조는 터뜨린 울음이 증거라도 되는 양 키리코를 가리켰다.

겐지는 키리코를 내려서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서 그녀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형 말이 맞아. 미안해."

"제발... 싸우지... 마." 그녀는 훌쩍거리면서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걱정 마. 단지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야. 형제 사이에 흔한 일이지."

겐지는 키리코가 이렇게나 속상해하는 것에 조금 놀랐다.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처음 본 것도 아닌 데다, 키리코가 진심으로 강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일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튼, 우릴 어떻게 찾아낸 거야?" 그는 한조에게 물었다.

그의 형은 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겐지가 노려보자 점주는 다른 곳을 쳐다봤다. 카네자카에 사는 자는 모두 시마다를 섬겼다. 충성을 다하는 자도 일부 존재했다. 겐지는 어느 쪽이 더 나쁜지 판단할 수 없었다.

물론 겐지도 시마다의 일원이었지만, 그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조는 그러한 일에 특히 재능이 있었다. "일족 장로들의 부하는 어딜 가나 있어." 좀 더 다정한 말투로 한조가 알려주었다. "말

나온 김에, 내가 온 이유도 알려주지. 아버지께서 긴급 일족 모임을 소집하셨다. 네가 또 불참한다면 보기에 안 좋을 거야."

"그건 날 위해 하는 말이야, 아니면 *형을* 위해?"

"보기에 안 좋을 거야." 한조는 다시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참석하는 걸 기대하지도 않아." 겐지는 말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선 *나한테* 모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지." 한조가 말했다.

겐지는 팔짱을 꼈다. "어깨에서 힘 좀 빼는 게 좋을걸."

한조의 눈이 번득였다.

겐지는 키리코를 어깨 위로 올렸다. "모임에는 참여할게, 친애하는 형."

"드디어..."

"나랑 한 판 해서 *이긴다면* 말이지." 겐지는 한 발자국 물러나 *파이터즈 오브 더 스톰* 게임기를 향해 손을 펼쳤다.

한조는 투덜거리면서도 두 번째 플레이어 자리에 앉아 조이스틱과 버튼 위에 어색하게 손을 올렸다. 겐지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다. 그는 게임에서 닌자 캐릭터와 가장 비슷한 스톤을 다시 골랐다. 한조가 거구의 가로쉬 헬스크림을 선택하는 걸 본 겐지는 놀라지 않았다.

건너편 형의 자리를 본 겐지는 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걸린 걸 보았다.

"네가 날 이길 수 있는 건 오락실 게임 정도겠지."

그날 밤 시마다 성에 늦게 돌아간 겐지, 한조와 키리코는 성 내부의 모든 불이 밝게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겐지는 소름이 돋았다. 정확히 알아듣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명백했다.

한조는 낮게 욕설을 내뱉고 앞서 달려갔다. 겐지도 서둘러 그를 따랐다. 그의 품속에서 잠들었던 키리코도 깨어나서 몸을 굳혔다.

"왜 그래?" 그녀는 아직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키리코!" 야마가미 아사가 부르자, 키리코는 긴장을 풀었다. 키리코를 내려놓은 겐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그녀를 뒤따랐다. 시마다 형제의 스승인 아사는 성으로 가는 길에서 한조를 멈춰세웠다.

"어디에 갔던 거니?" 아사가 키리코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한조! 겐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제 또렷이 들렸다.

한조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아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와 겐지를 바라봤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마." 그녀는 말했다. 그런 후 그녀는 키리코를 도장 쪽으로 데려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형제는 마치 우리 안의 짐승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소지로를 보았다. 한조와 겐지의 등장과 동시에 멈춘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방 굳어졌다.

겐지는 이어질 고함에 대비해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말투로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들이 참석조차 하지 않을 모임을 왜 소집했는지 일족의 지도자들이 궁금해하더군. 난 완전히 체면을 구겼다. *또다시.*"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한조가 말했다.

겐지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런 대화에서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알지 못했다. 실력 있는 닌자는 사라질 때와 방법을 아는 법이다.

"가문의 일부터 처리해라." 소지로는 말을 이었다. "가족조차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자식으로부터 충성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는 부하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더군. 적에게는 약해 보이며, 이끄는 일족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한조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도 못 하고 발 아래 다다미만 계속 쳐다봤다.

옆으로 빠져 선 겐지는 한조처럼 경의를 표하지는 않았다.

소지로는 골동품 목제 책상에 몸을 깊게 기대었다. "네가 오지 않았을 때, 난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알 길이 없었으니..."

소지로는 모두가 기억하는 힘든 시간을 떠올리며 말을 흐렸다. 그는 몇 년 전 아이들의 어머니인 루미코가 떠난 것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녀의 침착한 존재감과 냉정한 판단력은 아버지의 분노와 두려움을 조절해 주었다. 모두에게 사랑받던 그녀는 충성심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상냥한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아버지는 부유하지만 이기적인 일족 장로들을 지배하기 위해 주민을 통제해야만 했다. 그들은 전체의 부나 지위 향상을 보느니 일족을 갈라 먹고 말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녀의 부재로 잃은 체면을 되찾는 과정에서, 소지로는 아들들을 매우 엄격하게 대했다. 힘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보여주기*라는 말은 정확했다. 일족을 아래에 두고 아들을 감시하기 위한 치밀하고, 가식적인 행위들.

한조가 철저하게 배운 내용이었다. 그는 완벽한 아들이자 후계자가 되는 것에 집착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생각한 한조는, 겐지 또한 자신의 부풀려진 기준에 맞추려고 계속 시도했다.

형과 아버지는 일족을 섬기기 위해 태도를 고치기는커녕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겐지를 보며 그를 약하고 버릇없는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겐지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두고 떠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약하다고 여겼다.

"다 너 때문이다." 소지로가 말했다.

겐지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난 *항상* 널 보호하고 있다. 내가 내려야만 하는 어려운 결단에서, 네 형이 언젠가 내릴 그런 결정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빨갛게 얼룩져 있었다. "네가 우리 일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다, *작은 새* 녀석!"

겐지는 맞을 각오를 했지만,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 한조가 들어섰다.

"누군가를 탓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한조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련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죠. 집중한 나머지,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약속드립니다." 한조는 겐지를 흘겨봤다. "다시는."

깜짝 놀란 겐지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깊게 숙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일족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한조는 말했다.

소지로는 몸을 일으켰지만, 둘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내딛다 비틀거렸다. 한조는 그를 받치려 급히 나아갔다. 소지로는 그를 밀쳐냈다.

"*네놈*만큼은 기대했건만." 말을 내뱉은 그는 등을 돌리고 둘을 방에서 내보냈다.

다음 날 아침, 겐지는 떠나겠다는 일념만으로 일출과 동시에 일어났다. *아무 데나* 다른 곳으로. 그는 성에서 몰래 빠져나와, 영영 떠나게 될 날이 온 것인지 생각했다. 결국 가족이 여기까지 자신을 밀어붙인 것인가.

도장을 지나던 중,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다. 그는 장지문으로 가서 얇은 종이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평소처럼 한조가 안에서 훈련 중이었다. 아무튼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대체 어젯밤에 잠은 잤나?* 겐지는 훈련용 허수아비로 연습하는 한조를 보며 그가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에 대해 고민했다. 적 중 하나인가? 아니면 아버지?

그것도 아니면 겐지?

그는 들어가서 한조에게 휴식을 권할까 고민하며 문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새벽부터 강제로 훈련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지금은 피하고 싶은

“난 항상 널 보호하고 있다. 내가 내려야만 하는 어려운 결단에서, 네 형이 언젠가 내릴 그런 결정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빨갛게 얼룩져 있었다. “네가 우리 일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다, 작은 새 녀석!”

말다툼을 또 시작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어제 충분히 겪은 일이었다.

겐지는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났다. 도장은 잠깐 조용해졌지만, 그가 떠남과 동시에 훈련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기분 탓인지 이전보다 더욱 힘이 들어간 것 같았다.

명확한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겐지는 평소처럼 카네자카로 향하고 있었다. 일단 고양이 카페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우연히 친구라도 만나서 놀면 좋을 것 같았다.

겐지는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을 느끼고 멈추었다.

조용한 발소리로 볼 때 작거나 가볍고, 완전히 엇갈리는 걸음걸이로 걷는 사람인 것 같았다. 이런 일에 완전히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것이다.

뒤로 돌아선 겐지는 키리코를 보았다. 그녀는 겐지와 눈을 맞춘 채 팔을 똑바로 허리에 대고 계속 다가왔다. 정말 닌자다웠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할 때만 존재를 드러낼 줄 알았다. 키리코는 고민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안녕.” 겐지가 말했다. “나랑 같이 카네자카에 갈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리고 겐지 오빠도 가면 안 돼.”

“어?” 그는 자세를 낮추고 팔을 열어 그녀에게 가까이 오라는 듯 몸짓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꼬마 닌자?”

“또 오락실에 가면 혼날 거야.”

겐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내* 문제야.”

그녀는 발을 굴렀다. “아냐! 그는 오빠한테 화가 나면, 모두에게도 화를 내는걸!”

겐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에게 뺨이라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표정만 보면 그러고도 남았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조가 매번 하던 말이 뭐였더라? *넌 항상 너 혼자만 생각하지.*

겐지는 한조가 줄곧 부여하려 했던 책임감을 원치 않았기에 계속해서 저항해 왔다. 자신은 형과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들도 그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시마다 소지로의 자제가 되길 바란 적도 없었고, 아버지가 돈을 벌거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짓도 생각하기 싫었으며, 어느 날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데는 더더욱 흥미가 없었다. 그는 단지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아버지는 그를 *작은 새*라고 불렀지만, 새는 아무런 고민 없이 훨훨 날아갈 수 있다. 만약 겐지가 떠나버린다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나랑 한조가 다툴 때는 울더니, 이제는 내가 오락실에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키리코. 누군가 알아낸다면, 내가 해결할 거고.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거야?"

키리코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한 후 한 번에 말을 쏟아냈다. "오빠네엄마는어떻게된거야?"

겐지는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키리코는 시마다 루미코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때때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다. 한조나 겐지뿐만 아니라 소지로도 그녀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겐지의 어머니는 가족과 카네자카의 중심에 있던 존재였던 만큼 그녀를 기억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 엄마는 떠났어… 아주 오래전에." 그는 말했다.

"왜?"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

겐지는 엄마가 사라져 방황하고 화내며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소지로와는 다르게 그에겐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녀가 떠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했다. 겐지는 언젠가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자신이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녀가 *자신을* 찾아내는 순간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녀가 어디 있든 간에 더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돌이켜 보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엄마의 불행한 모습을 겐지는 기억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더 강해." 키리코가 강하게 말했다.

겐지는 자신의 가족도 키리코처럼 가까운 관계였다면, 하고 바라며 미소를 지었다. 아사와 야마가미 토시로, 그리고 키리코의 할머니이자 동네 신사를 운영하는 카모리 여사까지. 그들은 건실하고 충성스러웠으며 남을 보살필 줄 알았다. 몇 년간 거리를 두고 상처 입히며 서로 갈라지기 전에는 겐지의 가족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건 가족마다 다른 거야." 그는 말했다. "잘 들어, 내가 언젠가 떠나더라도 다시 널 찾아올게. 집이란 단지 *장소*가 아니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야."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그럼 이제 돌아갈까?"

키리코는 눈을 비비고 나서 그의 손을 잡았다.

대화가 끝난 후, 그녀는 시마다 성으로 가는 내내 신나게 수다를 떨었지만, 겐지는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했던 말과 그로 인해 드러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대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닌자 한 무리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겐지는 와키자시를 뽑아들고 키리코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손짓했다. 그는 그녀가 보내는 두려움 없는 시선에 감탄했다. 겐지는 키리코를 지키듯이 한 바퀴 돌며 검은 의상의 전사 8명을 주시했다. 적대하는 일족에서 보낸 자들인가? 하시모토는 주로 도쿄에서 활동했다. 이런 먼 곳까지 나올 일은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적이자 시마다 가문의 대를 끊기 위해 보내진 암살자들인가? 어떻게 아무런 경보를 울리지 않고 내부에 잠입할 수 있었던 거지?

원이 열리고 흰색 케이코기와 검은 하카마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자, 그는 이들이 시마다 일족의 닌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쿠데타라도 일으키려 하시나요, 스승님?" 그는 물었다.

아사는 웃었다. 잠시 후, 한조가 원 안으로 들어와 굳은 얼굴로 팔짱을 꼈다.

겐지는 키리코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날 속였구나!"

"명령을 따르고 있었어!" 그녀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다 뭔가요?" 그는 아사와 형에게 물었다.

"네가 훈련에 올 생각을 안 하니, 우리가 훈련을 해 주러 온 거야." 그의 스승님이 말했다. "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것 같네."

그녀는 한조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겐지가 꺼낸 칼을 주시하며 그에게 접근했다.

"아까 도장에서 함께 하지 그랬어." 한조가 낮게 말했다.

"형 생각이었어?" 겐지는 물었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럼 그렇지."

아사가 손뼉을 쳤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가르친 내용을 활용하며 협력하는 것뿐이다.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게 노력해 봐.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의식은 잃지 말도록." 그녀는 딸을 바라보았다. "키리코."

"으앙!" 키리코가 투덜거렸다. "나도 놀고 싶어!"

"좀 더 크고 나서." 아사가 말했다.

겐지는 칼을 다시 넣었다. "이거 좀 맡아 줘."

키리코는 씩 웃으며 양 팔을 뻗었다. 팔 위에 무기를 올려둔 겐지는 그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둠 속의 검이다"라고 중얼거렸다.

아사는 딸을 멀리 보낸 후 자신도 물러났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후 손을 올렸다가 수직으로 내렸다. "시작."

닌자들이 일제히 공격해왔다.

연습 부족인 겐지는 이 정도 수의 적을 한꺼번에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한두 명의 닌자와 대련하거나, 한조와 맞붙는 것에 익숙했다.

한조 또한 준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공격해 온 자들을 그럭저럭 상대했다. 혼자 하는 훈련에 익숙해진 그는 달려드는 닌자들을 피하고 주먹과 발차기를 날렸다.

형제는 *같이* 싸운 적이 거의 없었다. 서로 호흡도 맞지 않아, 서로를 공격하려다가 실수를 깨달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새로우면서도 겸손해지는 경험이었다.

"우린 절대 이길 수 없겠는데." 겐지는 말했다. 공격이 그의 머리 옆에 빗맞자,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그는 발차기를 내질렀지만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지." 한조는 신음 소리를 내며 돌려차기를 피한 후, 상대의 반대편 다리를 낮게 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겐지는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배에 발차기를 얻어맞고 한조 쪽으로 날아가 부딪혔다.

"난 포기한다고 한 적 없어." 겐지는 말했다. "아직 여기 있잖아."

한조의 표정이 깨달음으로 변하는 순간, 누군가의 발이 그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버릇없는 닌자를 향해 동생을 밀쳐냈다. 겐지는 적과 부딪치며 소리를 질렀다. 멍하니 그대로 쓰러진 겐지 위로 닌자들이 포개지며 압박해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

한조는 동생에게 붙은 적을 떼어내려 했지만, 이제는 그가 노출되었다. 한조가 남은 닌자들에게 등을 보인 사이에 한 명이 뛰어들어 그의 등에 착지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그의 넓은 어깨를 잡았다. 또 하나는 팔 한 쪽에 매달렸다. 한 명 한 명씩 달라붙은 닌자들은 한조의 움직임을 막고 천천히 그의 무릎을 꿇렸다.

아사가 손뼉을 치는 소리와 함께 닌자들이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서야 겐지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는 쌕쌕거리며 한조를 찾았다. 다치기보다는 짜증이 난 것 같은 한조는 겐지나 아사 쪽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았다. 형의 성격으로 보건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화려하게 진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을 것이다. 장로들의 귀에도 이 일이 들어갈 것이다.

"패배도 승리의 길로 이어질 수 있지." 아사가 말했다. "하지만 용의 아들이라면..." 그녀는 실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승천도 *추락*도 함께 하는 법. 둘 중 *하나*만 훈련에 참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너희들의 팀워크엔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내일 해가 뜨면 도장에서 보도록 하지. *둘 다*."

겐지는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훈련을 빠질 입장이 아니었다.

최소한 자주 그럴 순 없었다.

그는 욱신거리는 팔을 문지르며 수업이 이렇게 거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했다. "왜 스승님은 우리에게 항상 엄하지?"

한조는 그를 노려봤다. "그건 네가 시마다가 되기엔 너무 약해서다."

겐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싸움 도중 뭔가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할 건 할 모양이었다.

"그래. 떠나는 것도 생각했구나." 한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겐지는 스스로 일어나서 외투를 털었다. "형과 아버지는 내게서 나 자신이 아닌 모습을 원하지. 내가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을지도 몰라."

겐지가 생각조차 못 한 고통이 한조의 눈에 깃들었다. 형은 아버지처럼 강하고 올곧게 자랐지만, 겐지는 자신의 말이 한조에게도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넌 언제나 도망치곤 했지. 네가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분노를 받아내는 건 나였다. 내가 원해서 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줄 알아? 내가 널 돌보는 건 차마 그럴 수 없…" 그는 말을 끊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후 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네가 옆에 있으면 힘든 수업도 받기 쉽지."

그는 크게 한숨을 내쉬고 멀어져 갔다. 겐지는 형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쳐다봤다.

그는 한조가 의무의 무게를 겐지만큼 부담스러워하며, 어쩌면 그만큼 싫어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매번 그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때마다 겐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더 강해,* 키리코가 말했었다.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뜬 겐지는 쓰라린 진실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나마 남은 가족을 한데 묶으려 최선을 다한 건 바로 한조라는 것을.

겐지도 짐을 같이 들어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형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야만 했다.

근처 덤불이 바스락거리자, 겐지는 형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앞을 바라봤다.

하지만 무성한 잔디 사이에 있던 건 그의 칼뿐이었다.

그날 저녁, 겐지는 한조가 사과를 들어 줄 정도로 침착해졌기를 바라며 그의 방으로 향했다. 키리코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한조의 방문 앞에 떡이 가득 쌓인 접시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겐지를 본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가 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바로 노크하고 잽싸게 도망쳤다.

"잠깐!" 그가 불렀지만 키리코는 그를 무시하고 복도 끝의 구석을 지나쳐 사라졌다.

겐지는 놀라움과 망설임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이어질 대화에 갑작스러운 불안을 느낀 그의 첫 번째 본능은, 키리코처럼 도망치는 것이었다. 어쩌면 한조가 방에 없을지도...

문이 스르륵 열리고, 한조가 그를 내다보았다. "겐지."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음." 겐지는 몸을 구부려 간식이 담긴 접시를 집은 후 형에게 주었다.

한조는 어색하게 건네받았다. "이게 뭔데?"

"나는 사과를 하러 왔지만, 이 선물은 꼬마 닌자가 가져온 거야... 물론 그녀도 우리가 화해하길 바라지." 겐지는 말했다.

키리코가 복도 끝에서 손을 쥐어짜며 살짝 쳐다봤다. "제발 더 이상 싸우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코를 들이마신 후 엄한 표정으로 찡그리는 그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사 특유의 노려보는 모습과 닮아 있었다. "*가지* 마, 겐지."

이 며칠 간에 있었던 일의 무게를 한꺼번에 느낀 겐지는 한숨을 쉬었다. 한조는 당장이라도 설교를 할 것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걱정 마. 난 아무 데도 안 가." 겐지는 손짓으로 그녀를 부른 후 꼭 안아주었다. "사람들은 가끔씩 진심도 아닌 말을 해. 나중에 후회할 말들이지."

한조는 자세를 바꾸었다.

겐지는 꿋꿋이 말을 이어갔다. "형,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은 하겠지만, 그건 내 방식대로여야만 해.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될 수도 없고,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인 마냥 굴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형의 부담을 덜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한조는 떡이 담긴 접시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있잖아, 이건 한 명이 먹기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양이야. 하지만 우리 셋이라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겠지."

그는 문을 크게 열고 겐지와 키리코를 안으로 들였다.

돌이켜 보니, 매복이 분명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였다. 다시 생각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명백해 보인다는 것.

주위 오락실 기계에 불이 켜지며 나는 음악과 삑삑거리는 소음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하시모토 부관의 지지직거리는 에너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락실 게임기의 그림자에서 더 많은 하시모토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오니

“네가 없을 때마다, 아버지의 분노를 받아내는 건 나였다. 내가 원해서 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줄 알아? 내가 널 돌보는 건 차마 그럴 수 없...” 그는 말을 끊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후 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네가 옆에 있으면 힘든 수업도 받기 쉽지.”

가면, 총신과 칼날이 화면의 깜빡이는 불빛을 반사했다.

겐지는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는 포위되었다. 하지만 겐지가 검을 손에 들기도 전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부관의 어깨에서 아직도 촉 끝 깃털이 떨리는 화살이 갑작스럽게 돋아났다.

부관이 화살을 뽑아낸 후 그것을 쳐다보는 사이에 수십 발의 화살이 한꺼번에 명중해 그림자 속으로 그를 날려버렸다. 누구의 짓인지 볼 필요도 없었지만, 겐지는 그래도 돌아보았다.

한조가 그를 내려다봤다. 그는 활을 어깨에 메고서 펼친 손을 겐지에게 뻗었다.

겐지는 망설였다. 둘이 함께 할 때마다 결국 끝에는 주먹다짐과 함께 칼보다 깊게 상처 입히는 말을 주고받았다. 겐지가 이전 만남에서 얻은 몸의 상처는 다 나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상처도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둘의 길은 계속 교차했다.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면서도, 둘의 운명은 마치 아버지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서로 엮여 있었다.

그 순간, 한조는 고통받고 방황하던 과거의 그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겐지가 떠올릴 수 있는 한 처음으로 그의 형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같았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야?” 겐지가 한조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널 구하는 모양인데.” 한조가 퉁명스레 말했다.

한조의 손을 잡은 겐지는 가슴이 죄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우리가 만났을 때, 넌 내게 편을 고르라 했지.” 한조가 말했다.

“겐지... 난 항상 네 편이었다.” 팔을 당기며 그를 포옹한 겐지는 똑같이 포옹을 돌려주는 형에게 놀랐다.

형은 정말로 달라졌구나, 겐지는 생각했다.

마침내 한조는 그를 놓았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 그는 말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지.

겐지는 끄덕였다. “형이 와서 다행이지만, 둘이 상대하기엔 여전히 너무 많아.”

"그렇진 않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에게 들키지 않고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지만, 겐지가 아는 누군가라면 가능했다.

뒤로 돌은 겐지는 빨간색 여우 가면을 쓰고 류이치몬지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집에 잘 왔어, 겐지." 그에게 검을 건네주며 키리코는 웃었다. "참 오래도 걸렸네."

몇 년 만에 그녀를 처음 본 겐지는 놀라움에 움직이지 못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지만, 장난기 있는 눈은 그대로였다. 키리코는 부적을 꺼내 겐지의 가슴팍에 달아주었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상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겐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재회한 두 명을 올려보았다. 이 순간이 찾아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몰랐지만, 지금 겐지의 마음속은 가벼웠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느껴졌다.

하시모토 조직원들이 총을 들고 세 명에게 접근했다. 여기에 회색 전술 방어구를 착용한 병사들까지 지원군으로 합류했다.

탈론이었다.

겐지가 찾던 답이 여기에 있었다. 오버워치에게 탈론의 개입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이제 여기를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됐다.

총알이 쌩하고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리 탈론이 있다 해도 좀 많은데. 뭔가 생각 없어?" 겐지는 칼날로 사격을 튕겨내며 물었다.

"일단 버텨 봐." 키리코는 말했다. 난전에 뛰어들며 그녀의 쿠나이가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순식간에 움직이는 그녀의 뒤에는 희생자들의 비명과 쓰러지는 소리만이 따라다녔다.

겐지와 한조는 서로 등을 맞대었다. 둘은 훈련했던 그대로 완벽한 호흡을 보이며 몸을 돌리고 공격과 방어를 해냈다. 검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접근하는 적은 겐지가 처리하고, 한조는 뒤에 있는 적에게 꾸준히 화살을 날렸다.

눈으로 흘러드는 땀방울에 거친 숨을 쉬면서도 겐지는 물러나지 않고 싸웠지만 적의 무리는 계속해서 밀려왔다. 겐지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고, 한조가 폭풍활로 쏘는 화살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그 와중에 부상을 입은 하시모토와 탈론 요원들이 오락실 구석의 어둠 속으로 비틀거리며 물러나면서 잠시 전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키리코가 겐지 옆에 다시 나타났지만, 그녀가 접근하는 기척이 들렸다는 것은 그녀 또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키리코는 가면을 벗고 이마를 훔쳤다.

"이렇게 구석에 몰려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한조가 활을 손보며 말했다. 화살 대부분이 도망치는 하시모토에 박혀있어 화살통이 거의 빈 것을 겐지는

알아챘다.

키리코는 한 손으로 쿠나이를 돌렸다. "퇴로를 확보해야 해."

"내가 놈들의 주의를 끌어 길을 열지." 겐지가 말했다. " 하지만 난 오버워치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여기 왔어. 하시모토 요새에 침투해 그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만 해."

"장담하건대,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한조가 말했다. "지원이라도 없으면 무리지. 놈들은 남은 시마다 일족에 전부 현상금을 걸었어."

"거기에 적도 더 있는 것 같아." 키리코가 말했다.

오락실 사방에서 타닥거리는 파란색 에너지가 번득였다. 새로운 탈론 돌격병 무리가 야마가미의 검을 휘두르는 하시모토 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진했다.

"하시모토가 아빠에게 쉴 틈을 주지 않은 모양이네." 키리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이 대체 어디서 이 정도의 병력과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

"그들은 탈론과 협력하고 있다." 겐지가 말했다. "아니면 탈론을 *섬기고* 있거나. 그건 아직 알아내려 하는 중이야."

하시모토 부관은 발을 약간 절으면서도 소규모 군대의 선봉 위치로 나아갔다.

"놈이 아직 걸을 수 있잖아. 실력이 녹슨 것 같은데, 형." 겐지가 말했다.

한조가 신음을 흘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마지막 화살을 시위에 메겼다.

적 사령관도 자신의 무기를 뽑아들고 손짓으로 이끄는 병력을 전진시켰다. 그들은 세 명을 포위하고 천천히 압박했다.

겐지는 말없이 키리코와 한조를 바라보며 서로를 다시 이어준 인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에. 하지만 그에겐 도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들은 도움이 될 터였다.

"이 모든 것의 배후가 누군지 찾아내야만 해." 겐지는 속삭였다. "날 두고 가."

"안 돼!" 키리코가 즉시 말했다. "이제 막 서로를 다시 만났잖아. 우리는 함께 할 때 강하다고."

"나도 그건 알지만, 네가 바깥에 있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될 거야. 이걸 가져가." 겐지는 키리코의 손에 작은 통신 장치를 쥐어주었다. "이걸로 오버워치에 연락할 수 있어. 날 구출할 때, 하시모토 기지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지.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할지도 몰라."

"카네자카에 우리 팀이 있어." 한조는 말했다. "널 찾으러 다시 오겠다."

겐지는 한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믿고 있을게."

한조는 잠시 겐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은 후, 키리코에게 떠나자는 의미의 몸짓을 취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도 맘에 안 들어."

"패배도 승리의 길로 이어질 수 있지." 겐지가 속삭였다.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보자고, 꼬마 닌자." 겐지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시모토 부관과 대치했다.

그는 병사들을 뒤에 두고 계속 전진했다.

겐지는 검을 뽑아들고 전장으로 돌격했다. 즉시 실내가 타닥거리는 에너지와 총소리로 폭발했다. 겐지는 적이 따라잡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질주하며 무기를 마구잡이로 베는 동시에 하시모토 부관을 향해 길을 뚫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기를 가르는 화살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직후 그는 부관과 검술을 겨루기 시작했다.

주의를 돌리기에는 충분한 수준의 전투였다. 적 병사들도 겐지와 부관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결투를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같았다. 그는 땀으로 쓰라린 눈을 깜빡인 후,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돌아봤다. 키리코와 한조는 들키지 않고 안전히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피로감으로 몸을 떠는 겐지는 부관의 검을 간신히 막아내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넘어져 무릎을 꿇은 그는 바닥에 검을 박고서 양손으로 잡고 일어서려 했다. 갑작스럽게 답답해진 가면에 겐지는 숨도 못 쉬고 헉헉댔다.

뻗어져 온 손이 그를 거칠게 붙잡고 그 자리에 고정시켰다. 적들은 겐지의 검을 빼앗고 손목을 뒤로 돌려 묶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뒤덮었다.

인정사정없이 깨워져 좁고 더러운 감방에서 끌려 나온 것이 며칠 만인지, 아니면 몇 시간 만인지, 겐지는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눈이 가려진 채로 기다란 복도를 따라 끌려가 밝은 방에 던져졌다. 빛 때문에 그는 바로 앞의 흐릿한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부관은 그림자의 인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겐지 또한 그 옆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건 대체 뭐 하자는 건데?" 그 인물은 경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적이고 로봇 느낌이 드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패배도 승리의 길로 이어질 수 있지.”
겐지가 속삭였다.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 그녀가 말했다.
“나중에 보자고, 꼬마 닌자.”

“검과 전투 방식으로 보건대 시마다 일족입니다.” 부관이 말했다.
책상 위로 금속이 부딪혔다.
“정말인가?” 장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것 참 흥미롭군.”

작가 소개

E.C. MYERS 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첫 작품 Fair Coin으로 안드레 노튼상을 수상하였으며, SOS 스릴러 시리즈, 네 권의 RWBY 청소년 소설 및 Five Nights at Freddy's 프랜차이즈 인터랙티브 노벨을 집필했다. 최근 출판 작품으로는 Gamers: Attempting Connection, Little Nightmares: The Lonely Ones 및 Kaiju Gaga(Choose Your Own Adventure Jr.) 등이 있다.